

慕原 金旭坤 教授의 民法學과 人生

참석 金旭坤 교수(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鄭相鉉 교수(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기록 徐淳澤 조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일시 2005년 1월 14일(금) 오전 11시

장소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편집자

2005년 1월 14일 오전 11시, 1970년 송실대학교에서 교편을 처음 잡으셨으며, 1984년부터 지난 학기까지 본교에서 민법을 강의하시고, 2005년 2월 28일이면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는 慕原 金旭坤 교수님과 그 제자로서 2004년 9월 1일 본교에 민법교수로 부임한 鄭相鉉 교수와의 대담내용을 전재합니다

I. 대화에 앞서

김육곤 교수(이하 “김”) : 어서들 오세요. 자, 차들도 한잔 하고.

정상현 교수(이하 “정”) : 날씨가 추워서... 어떻게, 오시는 길은?

김 : 추운데 오늘은 버스타고 왔어요. 저녁에 사법시험 합격자들 사은회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사은회에는 오늘이 마지막 참석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술도 한 잔 하려고 말이죠. 그리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비교법연구소 논문집 관련하여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 정교수는 별일 없지요?

정 : 예, 다소 바쁘기는 하지만,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중략)

정 :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에서 20여년을 봉직하시다가 내년 2월에 퇴임을 하시게 되는 모원 김육곤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 간 민법학의 외길을 걸어오신 선생님의 발자취와 학문적 뒷이야기, 인생철학,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마침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정년기념호로 발간하는 성균관법학 제16권 제3호에 이를 기록으로 남겨서, 후학들의 모범으로 삼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선 대담에 앞서 모원 김옥곤 선생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39년 경북 청도에서 출생하셔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청도와 대구에서 마치고, 1959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그 후 벨기에 루벵카톨릭대학(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프랑스 파리대학 비교법연구소(Institut de Droit Comparé)와 독일 뮌헨대학의 비교법연구소(Institut für Internationales Recht)에서 연구활동을 하시다가, 1970년 숭실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교편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는 왕성한 학문적 연구활동 외에 신문방송 주간, 대학원 교무처장, 학생처장, 법경대학 학장 등 학교행정에도 물심양면으로 관여하셨습니다. 1984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주로 채권법 강의를 전담하셨고, 교무처장, 법과대학 학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어려운 학교행정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셨습니다. 그 간 선생님께서는 “관습법에 관한 연구”나 “계약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 소고” 등 민법학계에 길이 남을 저명한 논문들을 발표하셨고, 불란서민법상의 제도로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등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으며, 한국민사법학회, 한독법학회 등의 학회 활동과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각종 국가 시험에도 관여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처럼 많은 일을 해 오신 선생님의 생애를 모두 담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민법학 연구에 대한 열정과 고뇌, 학문연구자로서의 자세, 동료 교수나 제자들에게 대한 신뢰, 가족에 대한

애정 등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 뭐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별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데, 비교법연구



소에서 정년기념호로 논문집도 낸다고 하고, 그 논문집에 대담내용도 수록한다고 하니, 이 자리를 빌어 법과대학과 비교법연구소 관계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II.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길

1. 민법학에 대한 관심

정 : 무슨 말씀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학문에 뜻을 두셨고, 특히 민법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김 : 딱히 민법을 공부하고자 뜻을 두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그 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많이 읽었고, 대학에 입학 후에는 연구자로서의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경북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는데,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고시(사법과)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젊은 혈기로 1학년 때부터 시험준비를 했지요. 당시 동아일보에 고바우라는 만화가 연재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머리도 아주 짧게 깎고, 당시에는 물론 별달리 입을 옷들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물들인 군복에 군화신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의 합격과 상관없이 대학원을 진학하든가 유학을 가든가 할 계획을 가지고 시험공부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교수님들이나 선배들 조언이 하나같이 1학년 때부터는 시험공부를 하기보다는 교양과목을 충실히 할 것을 충고합니다. 그래서 수강신청을 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청강을 해가면서 교양공부에 열중했어요. 1학기 지나고 학점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학점도 참 짰어요.

정 : 선생님께서 학점이 짜다고 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학교 학생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 학점이야 말로 A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짠 학점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 : 아 그래요. 나는 그저 평가된 대로 점수를 준 것뿐인데. 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구만. (웃음) 그런데 당시 평균 B학점이 나왔어요. 당시 학점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그게 인문사회계 전체 수석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교양은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휴학계를 내고 절간에 가서 시험공부를 하였지요. 당시 시험과목은 모두 7과목이었는데, 대학진학자 아닌 사람은 예비고사 같은 시험을 본 후에 사법고시를 볼 수 있었고, 대학진학자는 1학년을 수료한 후에 바로 요즈음의 2차에 해당하는 논술시

험에 응시할 수 있었어요. 1년간 공부하니까 전과목이 5-6회독은 됩니다. 그래서 응시를 한 번 해볼까 하던 차에 갑자기 그 해 고시령이 대학수로 2년 이상 되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서, 결국 시험을 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복학을 했지요. 그렇게 되니까 시험공부에 회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반년간은 슬럼프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정 : 요즘에도 법과대학 학생들은 사법시험과 교양공부, 그리고 대학원진학 등에 대하여 고민이 많은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김 : 그렇지요. 그런데 나는 다행스럽게도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법학과 교수님들을 만나서 진로에 대하여서나 공부에 대하여 상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 때 자주 만나 뵈었던 분이 경북대 법과대학에서 오랫동안 민법을 가르치신 이태재 교수님입니다. 재작년에 작고하셨습니다만, 스승으로 모시고 존경하는 교수님이지요. 그 분께서 말씀하시길 학문연구에 뜻을 두었다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어학공부나 기타 법학 관련과목에 대한 교양을 쌓으라고 하였고, 그 말씀을 듣고 붙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법학연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그 때부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을 공부하게 된 것도 이태재 교수님께 상담이나 지도를 받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법이 다루는 분야가 바로 한자의 백성 민(民)자가 나타내듯 시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즉 국민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지요. 남들은 재미없고 어렵다고 하던데, 나는 재미있었어요.

2 벨기에 루벵대학에서의 유학생활

정 : 결국 선생님께서 이미 학문연구에는 뜻을 두었지만, 그 뜻을 이루시고 특히 민법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도교수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군요. 그럼 당시 이태재 교수님의 지도로 국내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외국으로 특히 루벵대학으로 유학을 가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김 : 그것도 또한 이태재 교수님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벵대학은 벨기에에 있는 대학인데, 벨기에는 6.25사변때 유엔군으로 참전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 때 참전한 군인들이 한국의 실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를 돕기 위해서 한국원조위원회(Comité d'aide à la Corée)를 결성하고, 여기서 카톨릭교회를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벨기에 유학을 지원하였어요. 이러한 내용을 이태재 교수님에게서 듣고 벨기에 유학을 위하여 붙어공부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당시 대구 신암동

에 있는 성당에 불란서신부가 새로이 부임을 하였는데, 그 신부가 한국어 공부를 하기 위하여 선생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당 주임신부님의 권유로 내가 한국어 선생이 되어 불란서신부님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정 :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사실 그 당시에는 한국어교재 같은 것도 있을 리가 없고...

김 :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그걸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였어요 사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불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가르쳐야 하니깐 나로서는 불어 공부를 두 배로 할 수 있었지요. 1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하였는데, 2년 동안 1주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는 설날에 고향에 내려가지도 않고 불어 공부를 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사전에 나오는 불란서 단어는 모조리 외우고, 불어로 씌어진 소설책도 7-8권 읽었어요. 참 그 때를 생각하면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모질게 공부한 적이 그 이후에 있었던가 할 정도로 열심히 하였어요. 그러다가 1963년 말경에 유학생선발시험을 봤습니다. 명동성당에서 불어와 서양문화사로 시험을 보았는데, 불어는 해석 1시간, 작문 1시간, 회화 20분의 시험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명 정도 선발하는 시험이었는데 나하고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사람하고 둘이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1964년 어렵사리 비행기표만 사가지고 벨기에로 떠났지요. 비행기도 대만으로 갔다가 일주일가량을 기다려서 다시 프로펠러 비행기로 갈아타고 취리히에 도착, 취리히에서 다시 벨기에 브뤼셀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지요. 그런데 비행기요금으로 400불을 지불하고 나니까 달랑 20불이 남았어요. 대만 시내에서는 바나나 한 덩어리 사먹은 것 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취리히에서 브뤼셀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공항에서 학교까지 갈 교통비가 걱정되는 터라 남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기내에서 잠시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과 서투르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동행하던 그 외국인의 조카가 루뱅대학의 조교였고, 내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학교생활의 일부를 들을 수 있었지요. 공항에 도착해서는 다행히 마중을 나온 분이 있어서 무사히 루뱅대학까지 갈 수 있었어요.

정 : 루뱅대학에서 공부할 때, 우리나라의 교육과 다른 점이라든가, 그 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 : 당시 그 대학의 교수들이 강의를 매우 열심히 하였다는 기억과 매우 치밀하게 강의하고 평가하였다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유럽대학은 거의 모두 구술시험 또는 필기시험의 방식을 취하였지만, 루뱅대학에서는 모두 구술시험을 치르는 방식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구술시험을 보는데, 교수 연구실 앞에 있는 테이블위에 질문

지 카드를 덮어두고, 학생이 입실하면서 두세 개의 카드를 뽑아 와서 교수님께 보이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학기인가 채권법수업을 담당하던 교수가 갑자기 휴강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 부분이 아마도 사무관리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설마 강의하지 않은 그 부분이 구술시험에 출제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허참 근데 하필 내가 선택한 카드의 문제가 사무관리였던 거야.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내용을 떠듬떠듬 얘기하고, 다른 문제는 자신있게 답을 하였더니, 다행히 그 과목의 과락은 면했죠. 루벵대학에서는 한 과목만 낙제하더라도 그 학년 전체를 유급당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어요. 거기서 느낀 것은 그러한 구술시험이 테스트로는 참 좋은 것 같아서 한국에 돌아와 숭실대학에서 그 방법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학생수가 많아서 힘들지만 말이죠. 기억에 남는 또 한 가지는 어느 노부부의 가정에 부활절 기간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분들의 자녀들도 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카드놀이며 장기놀이 등을 하면서 재미있게 보냈어요. 거기서 약 사흘간 머물다가 떠나던 날이었는데, 갑자기 그 60대의 할머니가 그 동안 정이 들어서인지 포옹을 하면서 작별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고, 아직 그런 경험도 없던 터라, 당황해서 얼굴이 화끈거린 적이 있지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3. 교수가 처음 된 후

정 : 한국에 돌아오셔서 처음으로 숭실대학교 강단에 서게 되셨는데, 그 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김 : 루벵대학에서 지도교수님이 Renauld(Jean)라는 분이셨는데, 한 40대 중반 쯤 되셨었어요. 그 지도교수님은 내가 귀국하고 1년인가 만에 갑자기 작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후 프랑스 파리에서도 1년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정교수도 잘 아는 Raynaud(Pierre) 교수를 지도교수로 해서 지도를 받았고, 비교법의 대가인 David(René) 교수의 강의도 듣고 했는데, 그러다 다시 독일법을 공부해야겠다 싶어 David 교수와 상담한 후 독일의 뮌헨대학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세계적인 비교법학자인 Ferid(Murad) 교수의 도움으로 비교법연구소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지요. 저의 유학과정에서 Raynaud 교수, David 교수, Ferid 교수와 같은 대가들을 뵈고, 지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뮌헨대학에 있을 때, 어느 날 Ferid 교수가 한국의 김증한 교수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묻는데,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그분의 책을 통해서만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김증한 교수가 훔볼트장학금을

받아 쾰른대학에 오게 됐는데, 며칠 간 뮌헨에 머물 예정이라고 하면서 같이 만나자고 합니다. 뮌헨대학 바로 옆에 정원 내에 있는 호수가의 레스토랑(See Haus)에서, 뮌헨대학의 Ferid 교수, 김중한 교수, 나 그리고 당시 나의 약혼녀(현재 사모님) 그렇게 만났지요. 그리고는 우리 집으로 모셔서 이태리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신 기억이 납니다.

정 : 김중한 교수님께서도 약주를 잘 하시는 분으로 아는데, 아마도 그 날 거하게 한 잔 하셨겠네요.

김 : 그래요. 김중한 교수도 술을 참 잘 하였고, 나는 당시 오랜 외국생활에 한국 소식도 궁금하고 해서, 병이 등글고 뭉툭하게 생긴 Giganti라는 이태리 포도주가 있는데, 그것을 들어서 다 마시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김중한 교수는 객원 교수로서 쾰른에서 연구를 하시다가, 나보다 6개월 먼저(1969년 8월 쯤) 귀국을 했는데, 그 사이에 서로 여러 번 편지를 주고 받았지요. 그리고 김중한 교수가 독일에서 출국하기 직전에 한국에 들어가면 서울에 조용히 공부나 할 수 있는 대학을 하나 알아봐달라는 편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이력서를 하나 보내 달라고 해서 하나 보내드리고, 69년 겨울 루벳으로 건너가서 이듬해 70년 1월에 귀국했지요. 귀국 후 김중한 교수의 소개로 당시 숭실대학에 교수로 있던 심현섭 교수, 박길준 교수를 만나 숭실대학에서 강의해 줄 것을 요청받았지요. 며칠 있다가 숭실대학교 학장과 인사하고, 대구에 내려가서 모교교수님들께 인사드리고, 집에 들렀다가, 1970년 3월 1일로 숭실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김중한 교수님은 자주 만났지요. 사실 지방대학 출신으로서 서울에 사시는 은사도 없고 한 것이 안타까웠는데, 그나마 직접적인 은사는 아니지만 김중한 교수를 뵈고, 매년 새해에 세배를 하러 가곤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정 : 실례지만 처음 부임하셨을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김 : 내가 39년생인데 70년 3월이었으니까, 그 때가 31살이었지요.

정 : 요즈음의 경우는 보통 처음 부임하는 나이가 30대 중후반쯤인데, 상당히 빨리 교수가 되신 셈입니다.

김 : 내가 상당히 운이 좋아서 외국가서 공부해서 학위증 하나 따왔으니까 그 덕이죠 뭐.

정 : 무슨 말씀요. 모두가 선생님의 학식과 인품을 인정했기 때문이겠지요.

김 : 그 때는 그래도 내가 참 미남이었어요 (웃음) 학기 초에 화곡동에서 제2한강교(현재 양화대교)건너서 당시 98번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당산동 지나서



영등포쪽에선가 한 여학생이 타서 내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아마 집에서 깜빡 잊고 지갑을 갖고 나오지 않은 듯한데, 차비를 내지 못해 난처해 하길래 그 여학생 차비를 대신 내줬어요. 당시 버스요금이 20원이었지 아마. 버스에서 내려 학교로 들어가는데 그 여학생이 나를 어리

게 보았는지, 내게 대뜸 “우리 학교에 다니는 군요. 무슨 과 몇 학년이세요?”하고 묻길래 “법학과 1학년”이라고 했더니,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차린 듯이 멀리 달아나더군요. 그게 70년 3월이었어요. 그 후에도 그 여학생과 캠퍼스 내에서 자주 마주쳤는데, 볼 때마다 차비를 달라고 하면,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가곤 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그 차비 20원을 못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멋졌으면 그랬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정 : 선생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에 오셔서도 프랑스풍의 패션을 선보이신 분이라 멋쟁이시라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20원의 버스요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웃음)

정 : 선생님께서는 학문적인 능력 이외에 행정적인 능력도 발휘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연구하는 교수가 학교의 보직을 맡는 것은 외도라고 생각해요. 교수가 대학 본부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학교일을 하다보면 연구와 강의에 소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학교행정일도 하기는 해야 하고, 부득이 맡을 수 밖에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일은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행정일을 하는 동안, 다른 분들이 보다 많은 연구와 보다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4. 성균관대학교에서의 교수생활

정 : 성균관대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는?

김 : 숭실대학에서는 그럭저럭 만 14년간 봉직한 셈입니다. 그 동안 두어 군데서 초빙제이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학교를 자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내 자신으로서는 성실하게 재직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1982년인가 1983년인가 숭실대학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생의 강의문제로 어떤 교수와 언쟁이 있었고, 나는 아직 박사과정생에게 법학 전공과목의 강의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그 교수가 매우 강경한 어조로 어떤 의미에서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박사과정생은 나도 아끼는 학생이었지만, 본인을 위해서나 학생들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었지요. 나는 내 나름대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지도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전혀 엉뚱한 말을 듣고는 숭실대학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되었지요. 그게 1983년 12월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1984년 새해 김증한 교수님께 세배를 드리러 갔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불란서민법을 강의할 사람이 필요하니, 초빙에 응해 보라고 하셨어요. 물론 그럴까 생각도 했지만, 당시 객원직 교수, 김증한 교수 등이 있어서 민법강의만 담당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나로서는 사실 불란서민법만 강의하는 것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초빙에 응하지 않았지요. 그 때 마침 성균관대학에서도 동시에 초빙제이가 들어와서 내 전공인 채권법강의를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1984년 3월부터 본교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정 : 그 당시 성균관대학교에 오셨을 때 첫인상을 어떠셨습니까? 외적인 시설이나 내부적인 면이나..

김 : 우선 외향적인 걸로 보자면, 근데 참... 처음 부임한 교수에게 연구실배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강의실이나 연구실이나 공간이 참 부족했어요. 상법을 강의하시다가 작년에 정년퇴임을 한 임흥근 교수와 내가 같은 해에 부임했는데, 1개의 연구실을 둘이서 같이 쓰라고 해서 서로 불편했지요. 게다가 잘 알겠지만 舊 법대건물의 청결상태는 아주 안 좋았죠. 하지만 학생들이 인·의·예·지의 정신으로 단련되어서 그런지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은 87년인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당시에, 장례식날이었어요. 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묵념을 하고 그럴 만큼 나는 학생들의 입장을 배려해 주려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시국사건에 관련된 집회에 교내의 모든 교실의 책상을 전부 꺼내서 대성로에 쌓아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가 보니까 학생들이 모두 서 있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이 그것도 법과대학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도 찾지 못하고, 책상을 빼내는 모습을 보고만 있느냐고 야단을 친 기억이 있습니다. 과격한 학생들에게 거부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

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정 : 성균관대학교에 오셔서 가장 큰 보람이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김 : 교수에게 보람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내 지도를 받은 제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좋은 논문을 발표하고, 그래서 각 자의 직장에서 좋은 평가 받고, 또 많은 제자들이 유수의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는 것이 보람이라면 보람이지요.

정 : 열심히 하겠습니까.

III. 선생님의 학문관

1. 민법을 연구하는 올바른 방법

정 : 선생님께서는 민법이라는 과목을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바람직한 민 법의 학습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 :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민법에 민자가 백성민자 아닙니까? 그야말로 시민 생활에 기본이 되는 규범이죠. 민법은 로마법에서부터 역사가 매우 길죠. 인간의 사회 생활에 기본이 되는 민법을 학자로서 공부한다고 할 때는 항상 모든 제도를 연혁적으로 그 제도가 생긴 취지, 즉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러한 제도가 생겼는가를 충분히 살펴 봄으로써, 그 제도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 여태까지의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역시 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사회적인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요건적인 문제나 효과의 문제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 : 그렇지요. 연혁적인 취지를 살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건이나 효과가 나오는 거지요. 실무자들이 이러한 측면을 자세하게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학자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겁니다.

정 : 오랫동안 민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최근 법무부에 의하여 완성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민법개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 :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는 것이 좋을 듯싶고, 과정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할 말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 동안에 꼭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지... 그게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면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법개정에 있어서 아마 벌써 2년인가 3년인가 전에 법무부에서 금년 말까지 만들어 달라고 시급히 요청하고, 겨우 몇 개월 밖에 시간적 여유를 주지도 않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아주 줄속으로 만들 수 밖에 없는 거지요. 얘기를 들어보니, 기본적인 문제들은 몇 달 만에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맞지 않는 지엽적인 것만을 고치기로 했는지요. 그렇게 서둘러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편이나 이에 응하는 편이나 모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말하자면 민법은 우리 사법의 기본법인데, 적어도 10년, 20년 두고 연구해서, 조금 늦더라도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있는 후에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 : 유사한 예로 독일은 채무법을 개정하는 데만 10년 이상이 걸렸는데, 우리는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을 이렇게 성급하게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 바람직한 학자의 모습

정 :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바람직한 학자의 像은 어떤 것이며, 학문을 하는 방법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 : 정교수가 대학원에 진학할 무렵에도 내가 이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나는데, 학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요건을 평소 즐겨 말하곤 했어요. 우선은 꾸준하고 성실한 성격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문제를 파고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관련 자료를 찾고 하는 그런 소 같은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명석하고 둔한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된다고 봐요. 두 번째로는 눈이 밝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 육체적인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학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법학은 영미보다는 구라파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요즘에는 영어만능주의라고 해서 영어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고가 만연한데, 법학을 공부하려면 독일어와 붙어는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풍부한 자료를 습니다만, 이 요건은 사실 인터넷문화가 워낙 발달한 요즘에 와서는 그리 중요한 요건은 아니에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남이 없는 자료가 있으면 으스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리 밝은 눈이 있어도 볼 대상이 없으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꾸준한 근면성, 외국어능력, 그리고 요즘엔 그리 중요하

지는 않지만 풍부한 자료, 이렇게 3가지를 늘 말해왔었던 겁니다. 두어 가지 더 얘기한다면 학자는 돈을 벌어야 해요. 학자는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해야지 그런데다가 신경을 써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요즘 대학의 교수 대우가 가정 꾸리고 자녀들 공부시킬 정도는 된다고 봐요. 다음으로는 앞서 말한 꾸준한 자세와 직접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사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보면 매듭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버스를 타더라도 멍하니 앉아 있기 보다는 항상 그 문제를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나도 버스 안에서 평소 고민하던 몇 가지 문제를 불현듯 깨우친 경험이 몇 번 있어요.

IV. 선생님의 생애와 철학

1. 선생님의 생활철학

정 :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의 학문적인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선생님의 생활면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호가 모원(慕原)이신데, 그 모원이라는 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 : 모는 생각할 모(慕)자이고 원은 굴원(屈原)의 원(原)자입니다. 굴원을 생각한다는 의미인데, 이 호는 나보다 3살 정도 아래지만 친하게 지내면서 존경하는 본교 한문학과 송재소 교수가 지어줬습니다. 초나라의 굴원과 같이 깨끗한 세상을 갈망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사람이 되라고 지어 줬나 봐요.

정 : 선생님의 생애가 아마도 호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김 : 아니 그 보다는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호라도 그에 맞도록 지어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지어 줬겠지. (웃음) 다른 면에서 보자면 내 15대조이신 김 일자 손자의 호가 탁영(濯纓)입니다. 깨끗한 물이라야 갓끈을 씻는다는 뜻인데, 굴원이 지었다고 하는 어부사(漁父辭)의 답가인 창랑가(滄浪歌)에 나오는 말입니다. 청빈하고 강직한 선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정 : 선생님께서는 원주에 초당을 지으셨는데, 퇴임 후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두고 계신지요.

김 : 정교수도 잘 알겠지만, 원주에 있는 초당은 사실 정년퇴임 후를 대비해서 지은 겁니다. 민법의 모교수가 이번 학기에 정년퇴임을 한 후에도 대학원 수업을 하나

말아 주심사 부탁을 했지만 완곡히 거절했어요. 퇴임 후에는 정년이라는 제도의 취지대로 초당에서 읽고 싶은 책이나 읽으면서 지낼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불란서 서적들을 번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주민들을 상대로 특별히 도와 줄 수 있는 일도 없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좋게 말하자면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뜻인데, 그런 일을 하며 보내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정 : 장시간 좋은 말씀 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문 후속세대 교수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김 : 근래 우리 사회에는 기본원칙이 허물어지고 부정과 불의가 만연해 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대학에도 침투해 오고 있어요. 대학에도 뭔가를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 그러한 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아요? 나아가 교수에게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있어서 절대로 지름길로, 옆길로 가서는 안됩니다.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지키면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꺼예요. 즉,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하는 겁니다. 후배교수들이나 제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에요.

2. 선생님의 가족

정 : 사모님을 만나시게 된 동기는 어떠하셨습니까?

김 : 경북대학교에서 교양철학을 가르치는 은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독일에 있을 때, 그 분이 1969년 초 독일에 유학을 오셔서, 그 분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벨기에의 시골 교회에서 약혼을 하고, 결혼은 여름에 뮌헨에서 했지요. 당시 독일에서의 결혼생활은 집을 구하는 일이나, 손님접대라든가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두 번 할 일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웃음) 그리고 나는 70년 1월에 귀국해서 화곡동 형님댁에서 생활을 했는데, 집사람과 같이 귀국하지를 못했어요. 집사람은 뮌헨의 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선 나 혼자 귀국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 초기 신혼기에 6개월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정 : 선생님의 가족자랑을 한 번 하신다면요?

김 :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자랑이랄 건 없지만 반듯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고맙지요. 집사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결혼 당시에도 교수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었고, 집사람도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생활 덕분에 여태껏 돈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나에게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남편 주머니에 일정하게 필요한 용돈은 항상 챙겨 주었으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V. 맺음말

정 :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거의 두 시간이 넘게 걸렸군요. 부족할 정도로 오랜 시간 모원 김옥곤 선생님의 자세하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하실 말씀도 많을 테고, 후학의 입장에서 듣고 싶은 말씀도 많습시다만, 오늘 대화는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성균관법학 제16권 3호가 출간되면 많은 후학들이 가슴깊이 새겨야 할 글들로 채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2월말이면 정든 교단을 떠나시게 되어 후학들이 강단에서는 더 이상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못하게 되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에 초당을 지으신 뜻도, 그 곳에서 여태까지 하지 못한 불란서민법학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질 것이고, 후학들이 자주 찾아와 전하지 못한 많은 말씀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개별적으로나마 자주 찾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동안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 정교수나 그 외 제자들, 그리고 후학들에게 오늘의 대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